

함께 예배드리는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본 교회와 담임목사는 KPCA 해외한인장로회
캐나다 서노회 소속(밴쿠버상성교회, 밴쿠버지
구촌교회와 같은) 교단입니다.
우광현 담임목사는 한국에서 대한예수교장로
회(통합) 교단이었으며, 서울북노회에서 안수
받았습니다.

KPCA 해외한인장로회

KPCA는 1976년 로스앤젤레스, 뉴욕, 시카
고의 소수 교회들이 모여 설립된 이래 캐나다,
멕시코, 중미, 브라질, 아르헨티나, 뉴질랜드, 호
주, 일본 그리고 유럽을 포함하는 해외 한인교단
중 가장 큰 규모의 교단입니다. KPCA는 현재
미국교회협의회(NCCCUUSA)에 속한 36개명교
단 중 유일한 동양인 교단이며, 미국 장로교회
(PCUSA)와 한국 예장통합 교단과 함께 목회자
이동과 교류로 협력하고 있습니다.

♥ 에벤에셀교회가 선교하는 교회
- 인도네시아 장상택 선교사

♥ 에벤에셀교회와 기도로 협력하는 교회
- 빅토리아한인교회

모임안내

- ☆ 주일예배 오후 1시 50분
- ☆ 금요모임 매주 저녁 7시

Online Service

778-888-9543

vanebenezer.com

카톡 오픈채팅 -
“밴쿠버에벤에셀교회 문의”



교회소식

♥ 소그룹모임안내: 매일 첫째주는 성찬성례가 있습니다.

♥ 이번 주 성경통독 9월 20일 에스겔 23장 - 9월 26일 에스겔 29장

1. <하루를 시작하는 말씀의 joy> 『하시조』 말씀을 매일 나눕니다. 성경통독과 맞추어 하
루를 말씀으로 시작하시기를 바랍니다.
2. 금요모임이 7시에 시작됩니다. 말씀과 기도로 힘을 얻으시기 바랍니다.
3. 본 교회가 선교 후원하는 인도네시아 장상택선교사님과 가정을 위해 기도해 주세요.

기독교 대표 영성작가 시리조

294. '이웃을 사랑하라'

온 율법은 네 이웃 사랑하기를 네 자신 같이 하라 하신 한 말씀에서 이루어졌나니 _갈 5:14

우리가 명확하게 우리의 본으로 삼아야 할 그리스도의 모습은 '고난 받는 종'의 모습이다.
“욕을 당하시되 맞대어 욕하지 아니하시고 고난을 당하시되 위협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공
의로 심판하시는 이에게 부탁하시며”(벧전2:23). 바울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첫째가
는 계명임을 전제하지만 믿는 자들의 하나님에 대한 사랑은 두 번 강조했을 뿐이다.(롬
8:28, 살후3:5). 그러나 바울은 성도간의 교제와 사랑에 대해 더욱 강조한다. 갈라디아서
5장 14절에서는 더 나아가 “온 율법은 네 이웃 사랑하기를 네 자신같이 하라 하신 한 말씀
에서 이루어졌나니” 라고까지 말한다.

왜 사도 바울은 온 율법의 완성이 이웃 사랑에서 이루어졌다고 했을까? 이것은 이웃 사랑
이 하나님께 대한 경배와 찬양보다 우위에 있기 때문이 아니라 내어 주는 사랑을 통해서
율법이 증명되기 때문이다.

_티모시 조지 Timothy George

제 8권 38호 2026년 9월 20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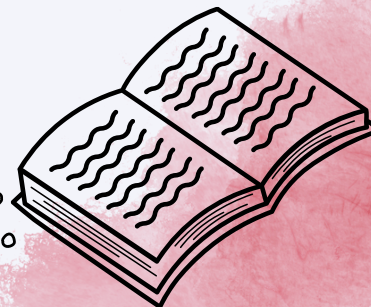
vanebenezer.com

여호와께서는 선두로 가시리라

The Lord At Their Head

미가 2:13

 **밴쿠버에벤에셀교회**
Ebenezer Korean Community Church
3977 Albert St, Burnaby. V5C 2E2



주일에배

*에서는 자리에서 일어서 주세요. Please stand all who are able

경배와 찬양 Praise&Worship	다같이
*기원 Invocation	인도자
*사도신경 Apostles Creed	다같이
사죄의 기도 Prayer of Repentance	인도자
찬송 Hymn	449장
연보 Offering	인도자
교회소식 Announcement	
성경봉독 Scripture Reading	여호수아 5장 13-15절 (구약 324)
말씀선포 Sermon	우광현 목사

가보지 않은 길(5) — 신을 벗으라 지금!

합심기도 Pray	다같이
*축도 Benediction	우광현 목사

SUMMARY 300

모든 준비를 마치고 여리고성을 눈앞에 둔 여호수아 앞에 칼을 빼든 여호와와 군대 대장이 나타납니다. "너는 우리를 위하느냐, 적들을 위하느냐"라는 여호수아의 질문에 그는 "아니라"고 답합니다. 하나님은 내 편인가 적의 편인가를 따지는 우리의 틀린 질문을 교정하시며, '내가 하나님의 편에 서 있는가'를 물으십니다. 가장 준비가 잘되어 내 계산과 전술을 의지하기 쉬운 바로 그 순간, 하나님은 주도권과 소유권을 내려놓으라는 의미로 "네 발에서 신을 벗으라"고 명령하십니다. 내 생각과 전략을 그만두고 하나님의 지휘 아래 들어갈 때, 우리가 서 있는 삶의 자리가 거룩한 땅이 되며 신실하신 하나님의 싸움이 시작됩니다.

소그룹나눔

- IceBreak : ①누구 편인지 분위기를 파악 VS 상황에 구애받지 않고 내 갈 길 간다
②자신감이 붙어 신이 난다 VS 혹시 모를 변수에 더 긴장한다
③모든 걸 내가 지휘해야 편하다 VS 남에게 맡기는 게 더 편하다
④내 계산과 다르면 당황해 머뭇거린다 VS 즉시 내 계획을 수정한다
- 여호수아는 "우리 편이냐, 적 편이냐?" 물었지만 하나님의 대답은 "아니야 (Neither)"였습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을 내 편으로 만들려 했던 태도는 무엇인가요?
① 내 계획과 결정을 이미 정해놓고 축복만 해달라고 구했던 답정러 모습
② 하나님을 종사령관이 아닌 내 유용한 조력자로 여겼던 태도
③ 내가 하나님 편에 서기보다 하나님이 내 편이 되어주시길 요구함
④ 내 전략과 계산이 맞아떨어지기만을 하나님께 기대했던 마음
⑤ 기타:
- 고대 근동에서 신을 벗는 것은 소유권과 주도권을 포기함을 의미합니다. 나의 종사령관 자리를 하나님께 넘겨드리기 위해 내가 내려놓아야 할 '신발'은 무엇인가요?
① 완벽한 내 전략, 경험, 그리고 머릿속의 계산들
② "이건 편이지, 쉬운 일이지" 하고 하나님 없이 건방진 자만함
③ "내가 이길 수 있을까?" 하는 두려움으로 머리가 복잡해진 마음
④ 준비가 잘 될수록 기도보다 내 능력을 더 의지하려 했던 산뜻한 교만
⑤ 내 인생과 사역의 종사령관 역할을 내가 끝까지 쥐고 신을 안벗으려는 똥고집
⑥ 기타:
- "여호수아가 그대로 행하라." 모세처럼, 여호수아처럼 지금 이 순간 내 삶에서 주님의 지휘 아래 들어가기 위해 결단할 순종은 무엇인가요?
① 복잡한 생각과 계산을 멈추고 제발 읽드리
② "그대로 행한" 이후 결과를 예측하지 않기
③ 아무것도 없는 순간에도, 가장 준비된 순간에도 신을 벗을 용기
④ 내 이름(_____) 주님의 말씀에 즉시 "그대로 행함"
⑤ 먼 여리고를 정탐하더라도 그 후에 주님께 묻고 구하기
⑥ 기타:
- 오늘 내게 주신 말씀 한문장과 각자 기도제목을 나누요.



지난 주 연보

- 주일연보 \$ 60
- 십 일 조 \$200

온라인연보계좌
offering@vanebenezer.com

이렇게 기도합니다

- 교회를 지켜주소서
주의 몸 된 교회로 든든하게 서가며 은혜의 공동체로 세워지게 하옵소서
- 예배를 지켜주소서
오직 예수만 높이며 찬양하게 하시고 예수 밖에 없음을 알게 하옵소서
- 믿음을 지켜 주소서
연약하지만 그러기에 더욱 주님을 붙들고 믿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 가정을 지켜주소서
매 순간 주님의 도움을 구하며 기도하는 복된 은혜의 가정되게 하옵소서
- 건강을 지켜주소서
질병과 스트레스, 사고로 부터 지켜주시고 몸과 마음을 위로 하옵소서
- 학교와 직장을 지켜주소서
만나는 사람들에게 기쁨이 되고 칭찬받는 자들이 되며 성취할때마다 감사하게 하옵소서
- 삶을 지켜주소서
비전으로 살게 하시고 목적과 기대를 주셔서 작은 일에도 만족하며 베푸는 사람 되게 하옵소서